

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수십 년에 걸친 압박 정책이 실패한 오늘,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가능한 프레임워크는 바로 평화협정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코리아피스나우! 캠페인은 남과 북, 미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1. 미국, 남한, 북한은 한반도 전쟁의 완전한 해결이자 평화체제의 토대가 될 공정하고 구속력있는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여야 한다.**
 - a. 당사국들은 정치적 전제조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 b. 당사국들은 구속력있는 협정 비준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구속적인 수단인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 c. 당사국들은 전시 무력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d. 당사국들은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종료됨을 인정해야 한다.
 - e. 당사국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경계선을 인정해야 한다.
 - f. 당사국들은 무력 사용 이외의 다른 안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g. 당사국들은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실현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이 위기의 해법을 더 진전시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
 - h. 당사국들은 무력사용 이외의 문제를 다루는 협상카드로 평화협정 가능성을 도구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2. 평화협정이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다음 원칙에 기반한 평화체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 a. 공정한 군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통한 공동의 협력적 안보 추구.
 - b. 각 국가의 생존권, 주권의 평등, 각 국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체제 선택의 자유를 상호 인정하고 냉전시대 진영논리를 타파하는 것.
 - c.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것.
 - d. 평화권의 완전한 실현과, 전쟁없는 삶이 유엔이 선언한 권리들과 인류의 핵심적인 자유를 전면 이행하는 선결조건임을 인정하는 것.
 - e.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제시된 여성, 평화, 안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여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 평화 체제는 평화를 옹호하는 여성과 시민사회가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군사주의와 전쟁에서 탈피하여 인류의 필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여성주의적 이해를 기반으로 안보를 재정의해야 한다.

이 권고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 코리아피스나우!'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의 권고를 번역한 것이다. 영문 권고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PEACE NOW